

## Comparison of English Speaking Anxiety between Chinese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sup>1)</sup>

Jeong, Ji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ster)  
Kim, Haedong<sup>2)</sup>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essor)

---

---

< ABSTRACT >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nglish speaking anxiety perceived by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t a university general English conversation class in Korea and to compare it with that of Korean students. For the data collection, a questionnaire survey asking about English speaking anxiety was conducted on 86 Chinese students and 100 Korean students enrolled in a university in Seou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university students showed a higher level of anxiety than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four areas of classroom anxiety, evaluation and class preparation anxiety, teacher-related anxiety, and peer-related anxiety. Second, Chinese student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classroom anxiety among the subsections of anxiety whereas Korean students answered the highest level at peer-related anxiety. Third, in qualitative response, Chinese students responded that lack of English speaking ability was the most influential cause of English speaking anxiety, while Korean students mentioned that lack of confidence was the biggest cause of anxiety. The findings suggest that general English course instructors need to take ca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levels of English speaking anxiety between Chinese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minimize their English speaking anxiety and maximize creativity in their speaking performance.

**Key Words** : Anxiety, university English class, English speaking anxiety,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Korean university student

---

---

- 
-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of 2021. This study includes part of the MA thesis of the first author.  
2) Corresponding Author: Kim, Haedong,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Korea, 02450 / E-mail: [khd@hufs.ac.kr](mailto:khd@hufs.ac.kr)

##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 비교<sup>1)</sup>

정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김해동<sup>2)</sup>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 요약 >

---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영어 회화 수업을 수강하며 느끼는 영어 말하기 불안감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생 86명과 한국인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중국인 학생은 영어 말하기 불안감의 4가지 세부 영역인 수업 관련 불안, 평가 및 수업 준비 관련 불안, 교수자 관련 불안, 동료 관련 불안의 영역에서 한국인 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보였다. 둘째, 불안의 세부 영역 중에서 중국인 학생은 수업 관련 불안에 가장 높은 불안 정도를 보였으나, 한국인 학생은 동료 관련 불안에 가장 높은 정도를 보였다. 셋째, 질적 응답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학생은 영어 말하기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어 회화 능력 부족을 언급하였으나, 한국인 학생은 자신감 부족을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과 한국인이 수업을 같이 듣는 대학 교양 영어 회화 수업에서 교수자는 이들 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 세부 유형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영어 말하기 수업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불안감, 대학 영어 수업, 영어 말하기 불안감, 중국인 유학생, 한국인 대학생

---

- 
- 1) 이 연구는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연구는 제 1 저자 석사학위논문 일부 포함하고 있음.  
2) 교신저자: 김해동, 교수,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 E-mail: khd@hufs.ac.kr  
논문투고: 2021. 11. 01 / 심사일자: 2021. 11. 08 / 게재확정일자: 2021. 12. 03

## I. 서론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를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유학생의 숫자가 다소 줄어든 상태이지만, Ministry of Education(2020)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던 유학생의 수는 104,262명으로 최초로 1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9년에는 160,165명으로 계속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추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는 유학생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매년 40%가 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로 인하여 국내 대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중국인 학생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관련하여 한국어로 진행되는 일반 수업에서는 중국인 학생의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하여 두 학생 집단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의 개선 방안을 찾는 연구도 빈번히 출현하게 되었다(Kim, 2015).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함께 수강해야 하는 필수 이수 과목 중의 하나인 교양 영어 회화 수업의 경우 영어를 수업 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부담이 배제되었을지라도 영어 사용과 관련된 의사소통 방해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인 학생과 대비하여 차이가 날 수 있다(Kim, 2019). 특히 교양 영어 말하기 관련 수업에서는 영어로 토론 및 발표하는 학습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라 영어 말하기와 관련된 의사소통 방해 요인의 하나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에 대하여 비교 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된다(Shin & Yoo, 201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유학생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중국인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국내 대학의 교양 영어 회화 수업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영어 말하기 불안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 조사 목적을 두기로 한다. 연구 설계상으로는 함께 수업을 듣는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연구 설계상 중국인 학생에 초점을 두어 한국인 학생과 불안감 정도를 비교하는 까닭은 국내 영어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인 학생은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인 학생은 유학생으로 새로이 유입된 변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 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학생의 불안감 정도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변화한 수업 환경을 파악하는 것에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인과 중국인 학생들을 한 교실에 교수해야 하는 영어 교원에게 이들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교양 영어 강의 환경 적응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에 대한 처치도 대비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유학생을 포함한 학생 대상 영어 학습 지원 및 관리의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외국어 불안감

불안감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어려움, 좌절감, 자기 회의, 걱정 등의 다양한 감정적인 단계적 상태를 포함하는 일련의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Brown & Lee, 2014). 불안감 중에서도 외국어 불안감은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하고 연구하고 있다. Horwitz et al.(1986)은 외국어 불안감을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언어 학습 과정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신념, 느낌과 행동 등의 특징적인 복합체로 정의하였고 외국어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FLCAS)를 개발하여 외국어 불안감에 관련된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외국어 불안감을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Scovel(1978)은 외국어 불안감을 외국어 학습자에게 외재적, 내재적으로 작용하는 집합인 정서 상태로 정의하고, 외국어 불안감이 초래하는 영향을 기준으로 부정적인 방해적 불안감과 긍정적인 촉진적 불안감으로 분류한다. MacIntyre & Gardner(1991)는 외국어 불안감을 특성 불안감과 상태 불안감으로 분류하고, 개인에게 일정하게 지속되는 불안 경향을 특성 불안감으로, 특정 상황에만 표출되는 불안을 상태 불안감으로 정의한다. Young(1991)은 외국어 불안을 6개 하위 요소로 분류한다. 이 하위 요소에는 개인과 대인관계 불안감,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 언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신념,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수업 절차에서 기인하는 불안 그리고 언어 시험에서 기인한 불안이 있다. 이처럼 문헌상에 많은 학자가 외국어 불안감의 유형과 하위 요소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불안감 중에서 외국어 말하기 불안감은 학습자가 외국어를 발화할 때 느끼는 불안감으로, 외국어 말하기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연구에서 Horwitz et al.(1986)은 외국어 말하기 불안과 학습 성취도가 부적 관계임을 입증하였다. Woodrow(2006)는 영어를 제2

외국어로 학습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연구에서 말하기 불안이 말하기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불안감은 외국어 말하기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문헌상 강조되고 있다(Sparks & Ganschow, 2007).

본 연구에서는 불안감의 정의로 관련 연구의 선구자인 Horwitz et al.(1986)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이들은 외국어 불안감을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언어 학습 과정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신념, 느낌과 행동 등의 특징적인 복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를 따르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개발한 외국어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FLCAS)를 기반으로 이를 응용하여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 2. 영어 말하기 불안감 선행연구

불안감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불안감에 관한 연구는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다(Park, 2020).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그간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 적응 문제나 학업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Kim, 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일반적인 영어 관련 불안감을 연구 초점으로 하는 비교적 최근 연구로는 Shin & Yoo(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영어 원어 강의와 중국에서의 영어 원어 강의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므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수강할 때 겪는 영어 불안의 정도도 국내에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Kim(2019)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 현장에서 보이는 높은 영어 불안 수준을 개인의 낮은 영어 실력이 큰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인 유학생 대상 연구 중 말하기 불안 유형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나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의 영어 불안감과 관련된 그간의 많은 연구가 듣기와 읽기와 성취도 간의 연구라는 점에서 말하기 불안감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Kim & Park(2014)은 지적하고 있다. 영어 말하기 불안감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국내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Park(1998)은 영어 회화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한 대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영어 말하기 학습 동기를 가졌으나 말하기 상황에서의 실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커서 동기가 감소하는 현상이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할수록 영어에 대한 불안의 정도는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Jang(2003)은 영어 회

화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불안감과 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했으며, 영어에 대한 불안이 증가할수록 영어 학습 성취도는 감소하고 불안이 감소하면 성취도가 증가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영어 불안을 6가지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Park(2002)은 영어 회화 수업을 수강하는 99명의 대학생과 강독 수업을 수강하는 96명의 대학생의 불안 양상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회화와 강독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모두 시험 불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고 불안이 높을수록 낮은 성취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Yoo & Pyo(2009)는 대학생 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불안감의 주된 원인으로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교수자의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지만, 동료 평가는 말하기 불안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양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Park(2020)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녹화강의 형식과 실시간 화상강의 방식 중에서 실시간 화상강의 방식에 대하여 수강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나타내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 외에도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는 환경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불안 비교 조사를 실행한 Jo(2009)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중국, 일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교실 앞에 나가 영어로 말할 때와 다른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이 자신보다 더 낮다고 느낄 때 가장 불안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국가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가별로 불안에 대해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항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학습자들은 대중들 앞에 나가서 영어 말하는 상황과 자발적으로 영어로 대답해야 하는 경우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높은 불안을 나타냈으며, 중국인 학습자는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 교실 앞에서 발표할 때의 두려움, 시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 나타나는 긴장의 정도에서 한국과 일본의 학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는 지명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이해 부족에 대한 두려움, 갑작스러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두려움 등에서 다른 두 국가의 학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불안감 정도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말하기 불안감 분석과 두 집단 간 비교를 병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의 하위 요소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본 연구에도 유사한 결과로 입증이 되는지를 주 초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기로 한다:

교양 영어 회화 과목을 함께 수강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의 수업 시, 시험 및 수업 준비 관련, 교수자와 동료 관련 영어 말하기 불안감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사립 H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86명과 한국인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다음 <표 1>은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개인적 배경에 대한 빈도분석의 결과이다.

<표 1> 연구참여 대학생 구성

구분	범주	중국인		한국인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24	27	22	22
	여자	62	73	78	78
전공	어학계열	62	73	64	64
	상경계열	13	15	25	25
	사범계열	3	3	7	7
	기타	8	9	4	4
영어권 국가 유학 경험	유	15	17	33	33
	무	69	83	67	67
영어권 국가 유학 기간	6개월 이내	12	80	17	51
	6개월-1년	3	20	7	21
	1-2년 이내	-	-	4	12
	2년 이상	-	-	4	12
하루 영어 학습 시간	전혀 안함	43	50	48	48
	1시간 이내	33	38	35	35
	1-2시간 이내	6	7	12	12
	2시간 이상	4	5	5	5
합계		86	100	100	100

두 집단을 비교하여 보면 성별이나 전공, 영어 학습 시간에 있어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인 대학생은 100명의 참여자 중 22명(22%)이 남자, 중국인 대학생은 참여자 86명 중 24명(27%)이 남자로 구성되어 유사한 성비를 보였다. 전공의 경우 한국인이나 중국인 대학생 모두 어학계열, 상경계열, 교육계열 순으로 분포 비율이 높은 정도를 보였으며 한국

인은 어학계열과 상경계열에 64(64%)명과 25명(25%)으로 중국인은 62명(73%)과 13명(15%)으로 두 계열 소속 학생들이 89%와 88%를 차지하였다. 해당 대학의 입학 전형 요강에 따르면 외국인 입학생의 경우 영어 관련 학과나 국제학부 및 국제통상학과의 경우 TOEFL IBT 80점과 IELTS 5.5점 이상을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학과 상경계열에 입학한 중국인 학생들은 중급 정도의 영어 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본 연구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하루 개인 영어 학습시간은 ‘전혀 안 함’과 ‘1시간 이내’에 한국인이 48명(48%)과 35명(35%)이 중국인은 43명(50%)과 33명(38%)이 응답하여 이 또한 비슷한 정도의 응답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영어권 해외 국가 유학 경험의 경우 한국인은 33명(33%)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지만, 중국인은 15명(17%)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유학 기간은 1년 이내의 단기가 한국인이 24명(82%), 중국인이 15명(100%)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유학 경험에 따라 한국인 대학생 응답자들의 영어 수준이 다소 높을 가능성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이러한 집단적 특성을 가진 한국인과 중국인 대학생 응답자들의 응답 비교이다.

## 2. 조사 도구

영어 말하기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Horwitz et al.(1986)이 개발한 외국어 말하기 불안 척도(FLCAS)를 기초로 Yoo & Pyo(2009)의 조사 도구 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양 영어 회화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안감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수업 시 느끼는 불안감’과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을 구분하여 상세화하였다. 그리고 Young(1991)이 분류한 바와 같이 불안감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교수자에 대한 불안감’과 ‘동료에 대한 불안감’을 구분하였다. 끝으로 불안감과 같이 인간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설문에서는 참여자가 문항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의 척도에만 응답하는 경향을 피하도록 역으로 묻는 문항을 넣는다는 점(Skehan, 1989)을 참작하여 ‘수업 관련 편안함’을 묻는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영어 말하기 불안 설문 문항은 총 27문항으로 수업 시 불안감(5문항),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5문항), 교수자에 대한 불안감(6문항), 동료에 대한 불안감(6문항), 수업 관련 편안함(5문항)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 대학생에게는 우리말로 된 설문지를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중국어로 된 동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중국어 설문지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중국어 강의를 하며 우리말이 능숙한

원어민의 검수를 받았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기초조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설문 개별 문항은 지면의 제한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설문지의 영어 말하기 불안 27개 항목에 대한 문항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문항 신뢰도: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 응답자

설문 문항	중국인 응답 (N = 86)	한국인 응답 (N = 100)	총합 (N = 186)
수업 시 느끼는 불안감 (5항목)	.91	.86	.88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 (5항목)	.90	.85	.87
교수자에 대한 불안감 (6항목)	.91	.88	.89
동료에 대한 불안감 (6항목)	.90	.91	.89
수업 관련 편안함* (5항목)	.90	.70	.77
총 27항목	.98	.97	.92

\* 수업 관련 편안함은 불안감과 반대되는 정의적 영역으로 전체 문항 신뢰도 측정 시에는 역 코딩하였다.

전체 27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2로 추출되어 본 설문지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집단의 신뢰도 계수도 중국인 대학생 응답자의 경우 모든 세부 영역에 있어 .90을 넘고 한국인 대학생 응답자도 수업 관련 편안함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70이며 이외에는 모두 .85를 넘는 것으로 보아 두 집단 모두 신뢰성이 매우 높게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설문지는 영어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상황과 불안감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방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Kim & Kim(2004)의 개방형 설문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이들은 ‘1. 영어로 말할 때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느꼈던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2. 영어 말하기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이 영어 말하기 불안의 상황, 증상, 원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서 H 대학교의 교양 영어 회화 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명단을 기초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파악하였고 같은 대학 국제교류팀의 협조를 받아 같은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해당 과목은 한 반당 2-30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이었다. 이 수강생 명단 중 무작위로 중국인 학생 100명을 추출하여 이메일로 온라인 설문 응답을 의뢰하였고 응답률은 86%에 이르렀다. 한국인 학생도 무작위로 120명을 추출하여 설문 의뢰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100명(83%)의 온라인 설문 응답이 회수되는 시점에 자

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이메일로 설문 의뢰 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설문지 링크를 안내하였고 응답자는 이 링크를 선택하고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9년 학기 초 3월 25일부터 2주간 소요되었다.

설문 시행을 위해 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6명을 대상으로 학생 지도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영어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상황과 불안감의 원인에 대한 설문지의 질문과 같은 것이었다. 개인별로 10분 정도의 면담을 통하여 이들로부터 중국어로 된 설문지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부차적으로 이들의 질적 응답 자료는 양적인 설문 응답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 대상 두 집단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설문 문항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두 집단 간의 응답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행하였다.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설문 응답값을 종속 변인으로 처리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개방형 응답에 대하여서는 주제별로 응답을 분류한 뒤 주제별 빈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 차이

본 연구의 질문인 ‘교양 영어 회화 과목을 함께 수강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의 수업 시, 시험 및 수업 준비 관련, 교수자와 동료 관련 영어 말하기 불안감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설문 응답 평균값의 범위가 1에서 5에 이르며 중앙값이 3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중국인 대학생이 응답한 불안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부 4영역 모두 평균 3점이 넘는 것을 주목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들 중국인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국인 대학생의 4영역에 대한 응답은 한국인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높은 불안감을 보여주었다. 두 집단 응답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 보면 수업 시 느끼는 불안감 영역은 .60(중국인 평균 3.74, 한국인 평균 3.14),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 영역은 .48(중국인 평균 3.64, 한국인 평균 3.16), 교수자에 대한 불안감 영역은 .61(중국인 평균 3.54, 한국인 평균 2.93), 동료에 대한 불안감 영역은 .31(중국인 평균 3.68, 한국인 평균 3.37)로 나타났다.

<표 3>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의 불안감 세부 요소 비교

불안감 세부 요소	중국인 (N = 86)		한국인 (N = 100)		평균값 차이	t	p
	M	SD	M	SD			
수업 시 느끼는 불안감 (5항목)	3.74	.92	3.14	1.08	.60	4.09	.00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 (5항목)	3.64	1.02	3.16	.95	.48	3.34	.00
교수자에 대한 불안감 (6항목)	3.54	1.01	2.93	1.03	.61	4.12	.00
동료에 대한 불안감 (6항목)	3.68	.96	3.37	1.00	.31	2.14	.03
수업 관련 편안함 (5항목)	3.09	1.08	3.10	.78	-.01	-.08	.94

이러한 설문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의 정도가 한국인 대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중국인 학생들은 교수자에 대하여 한국인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높은 불안감을 교양 영어 회화 수업에서 느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겠다. 흥미롭게도, 이는 이전 Jo(2009)의 연구에서 미국 거주 중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불안감을 보인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불안감의 세부 요소에 있어서는 지역적 맥락적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 바라고 하겠다. 이에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불안감에 대한 조사는 특정 교수 상황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한다.

중국인 학생들의 경우 불안감 정도는 수업 시 느끼는 불안감, 동료에 대한 불안감,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 교수자에 대한 불안감의 순서로 설문 응답하였다. 한국인 응답자의 경우는 동료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으며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 수업 시 불안감 그리고 교수자에 대한 불안감의 순서로 불안감 정도를 보였다. 이처럼 두 집단 간에는 불안감의 세부 영역에 있어 불안감의 정도에 따른 순서도 다른 점을 보였다. 특히 한국인 대학생 응답자가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인 동료에 대한 불안감의 경우, 이전 Yoo & Pyo(2009)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은 한국 대학생 조사 결과 동료 평가는 영어 말하기 불안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마 본 연구에 응답한 대학생들은 10년 전 교실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영어 수업을 듣는 국제화된 수업 상황을 경험하고 응답한 까닭이 차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다.

불안감과 반대는 수업 관련 편안함 영역에서는 한국인 대학생(평균 3.10)이 중국인 대학생(평균 3.09)보다 평균값 .01 정도의 미약하게 높은 응답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의 경우 편안함에 대한 동의하는 평균값 정도가 불안감의 세부 영역에 대한 동의하는 평균값 정도보다 하나의 세부 영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낮다는 것은 영어 회화 수업이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의 <표 4>는 수업 시 느끼는 불안감 관련 개별 문항에 대하여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의 응답 평균값과 두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 불안감 개별 문항 응답 비교: 수업 시 느끼는 불안감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중국인 (N = 86)		한국인 (N = 100)		평균값 차이	<i>t</i>	<i>p</i>
		<i>M</i>	<i>SD</i>	<i>M</i>	<i>SD</i>			
1	수업 시 앞에 나와서 영어로 말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3.35	1.25	3.28	1.26	.07	.37	.71
9	수업 시간에 영어를 사용할 때, 자신감이 부족하다.	3.22	1.31	3.43	1.23	-.21	-1.08	.28
15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계없는 것을 생각하는 나를 발견한다.	3.79	1.06	3.15	1.29	.64	3.71	.00
24	영어 회화 시간에 너무 긴장해서 아는 것을 잊어버린다.	4.21	1.03	2.69	1.20	1.52	9.31	.00
27	영어 회화 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끄럽다.	4.14	1.09	3.07	1.24	1.07	6.27	.00

수업 시 발생하는 불안감과 관련된 5개의 문항 중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였던 문항은 4문항(1, 15, 24, 27번)으로 한국인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였던 문항이 1문항(9번)인 것에 비하여 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전반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24번 문항인 ‘영어 회화 시간에 너무 긴장해서 아는 것을 잊는다’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응답 순위(평균 4.21)를 보였으나 한국인 대학생은 가장 낮은 응답 순위(평균 2.69)를 보이며 두 집단 간 응답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설문 27번 문항인 ‘영어 회화 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끄럽다’와 15번 문항인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는 나를 발견 한다’도 한국인 대학생의 응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높은 정도의 응답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 영어 수업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높은 불안감 결과와 일치한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부끄러움이나 자신감의 결여보다는 ‘긴장감’이 가장 높은 수업 시 불안의 요인으로 드러났던 반면에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는 ‘자신감의 결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 결과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들이 함께 수강하는 교양 영어 회화 수업 시 교사는 중국인 학생들의 긴장감을 낮추고 한국인 학생들의 자신감을 고취하는 수업 처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연구 결

과는 시사한다.

다음의 <표 5>는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 관련 개별 문항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5> 불안감 개별 문항 응답 비교: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중국인 (N = 86)		한국인 (N = 100)		평균값 차이	t	p
		M	SD	M	SD			
2	성적을 잘 받지 못할까 봐 염려된다.	3.58	1.24	3.57	1.11	.01	.09	.93
3	예습을 잘해도 늘 영어 수업 시간이 걱정된다.	3.62	1.20	2.56	1.23	1.06	5.90	.00
6	수업의 진도가 빨리 진행된다면 뒤처질까 하는 염려가 항상 든다.	3.73	1.12	2.94	1.27	.79	4.48	.00
20	준비 없이 영어로 발표해야 할 때는 공포심을 느낀다.	3.81	1.11	3.79	1.24	.02	.14	.89
26	나는 영어로 말할 때,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 문장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5	1.32	3.00	1.26	.45	2.40	.02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과 관련된 모든 5개의 문항에 있어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 이들 중 예습과 진도 및 오류 없는 준비에 대한 불안감 인식을 응답하는 문항 3번 ‘예습을 잘해도 늘 영어 수업 시간이 걱정된다’ 와 6번 ‘수업의 진도가 빨리 진행된다면 뒤처질까 하는 염려가 항상 든다’, 그리고 문항 26번 ‘나는 영어로 말할 때,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 문장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한국인 대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두 집단 모두 영어 발표 준비 관련 불안감을 응답하는 문항 20번 ‘준비 없이 영어로 발표해야 할 때는 공포심을 느낀다’ 에 대하여 이들 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이는 응답(중국인 학생 평균 3.81, 한국인 학생 평균 3.79)을 한 점이다. 이는 이들 두 집단 모두에게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영어 발표를 할 기회를 부여하여 불안감을 낮추는 조치를 교수자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는 문항 2번 ‘성적을 잘 받지 못할까 봐 염려된다’ 는 5개 항목 중 2순위로 높은 불안감 인식 정도를 보였다. 이렇게 높은 불안감 정도로 인하여 중국인 학생들과의 응답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불안감 인식 결과는 Park(2002)의 연구결과와 같이 한국 학생들에게는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중요한 불안감의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을 본 연구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 6>은 교수자 관련 불안감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개별 문항 문항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불안감 개별 문항 응답 비교: 교수자 관련 불안감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중국인 (N = 86)		한국인 (N = 100)		평균값 차이	t	p
		M	SD	M	SD			
10	교수님이 나의 실수를 일일이 수정 할까 봐 두렵다.	3.79	1.03	2.69	1.28	1.10	6.48	.00
13	영어 원어 수업에서 교수님의 말을 이해 못 할까 두렵다.	3.45	1.31	2.88	1.36	.57	2.92	.00
14	교수님이 나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 할까 봐 영어로 말하기가 긴장된다.	3.14	1.28	2.70	1.43	.44	2.15	.03
17	교수님이 나에게 대답을 하도록 하 면 당혹스럽다.	3.29	1.32	3.31	1.21	-.02	-.10	.92
22	교수님의 피드백을 이해 못 할 때 당황하는 편이다.	3.37	1.27	3.32	1.19	.05	.29	.77
25	영어 회화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수 님이 영어로 말하면 긴장된다.	4.21	1.04	2.64	1.31	1.57	9.06	.00

영어 교수자 관련 불안감을 묻는 6개의 문항 중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였던 문항은 5문항(10, 13, 14, 22, 25번)에 이르렀고 이들 중 22번을 제외한 4문항은 두 집단의 응답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수자 관련 불안감 역시 중국인 유학생이 전반적으로 높은 불안감 인식을 보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인 대학생들의 경우 교수자 관련 불안감 6개 문항 중 4문항이 평균 3점 이하의 응답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교수자와의 유대감에 있어 심각한 정도의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응답 상 특이한 점을 보면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25번 문항인 ‘영어 회화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수님이 영어로 말하면 긴장된다’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응답 순위(평균 4.21)로 답하였으나 한국인 대학생은 가장 낮은 응답 순위(평균 2.64)로 답하였다는 점으로 이 문항은 두 집단 간 응답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수업을 벗어나 과목 담당 교수자를 대할 때는 불안감이 낮으나 반대로 중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더욱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영어 회화 담당 교수자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도 되도록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어 이들의 불안감을 낮추는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의 <표 7>은 동료 관련 불안감에 대한 응답 대학생들의 개별 문항 응답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표 7> 불안감 개별 문항 응답 비교: 동료 관련 불안감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중국인 (N = 86)		한국인 (N = 100)		평균 값 차이	t	p
		M	SD	M	SD			
5	수업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지명하면 긴장한다.	3.83	1.15	3.72	1.22	.11	.61	.55
7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3.59	1.26	3.85	1.15	-.26	-1.45	.15
11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되어 아는 것도 잊어버린다.	3.91	1.08	2.94	1.25	.97	5.65	.00
18	나는 실수할 때 다른 학생들이 비웃을까 봐 걱정된다.	3.44	1.21	3.16	1.20	.28	1.59	.11
21	나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실수할까 봐 걱정된다.	3.20	1.27	3.49	1.19	-.29	-1.62	.11
23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당황하는 편이다.	4.10	1.11	3.06	1.20	1.04	6.12	.00

수업을 같이 듣고 영어 말하기를 함께 나누는 동료 관련 불안감을 묻는 6개의 문항 중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였던 문항은 4문항(5, 11, 18, 23번)이었다. 이들 중 23번 문항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당황하는 편이다’와 11번 문항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되어 아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중국인 대학생들이 1순위와 2순위의 높은 불안감 인식도를 보였으며 한국인 대학생과의 응답 수준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대학생이 동료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상황에 관하여 높은 불안감을 나타낸 바라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한국인 대학생은 7번 문항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가 가장 높은 순위의 동료 관련 불안감 항목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Jo(2009)의 한국, 중국, 일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른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이 자신보다 더 낮다고 느낄 때 한국인이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아마도 다양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 한국인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아 이러한 점이 이들의 불안감 유발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보면,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이 함께하는 영어 회화 수업에서 교수자의 학습자 불안감 처치는 다음과 같이 시행될 수 있다. 우선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여러 동료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 기회를 자주 부여하여 경험을 통한 불안감 극복방

안을 시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동료의 영어 실력을 생각하지 않고 의사소통의 상대방으로 간주하려는 의식상의 노력을 자주 하도록 교수자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다음의 <표 8>은 불안감과 반대되는 편안함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개별 문항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8> 불안감 개별 문항 응답 비교: 수업 관련 편안함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중국인 (N = 86)		한국인 (N = 100)		평균 값 차이	t	p
		M	SD	M	SD			
4	시험 치는 시간 동안 보통 편안하다.	2.97	1.38	3.07	1.04	-.10	-.58	.56
8	영어로 원어민과 얘기할 때 긴장을 하지 않는다.	2.55	1.24	3.27	1.35	-.72	-3.77	.00
12	수업 시간에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다.	3.28	1.39	3.4	1.26	-.12	-.62	.53
16	수업 중 영어로 실수할 때 걱정하지 않는다.	2.41	1.16	3.12	1.28	-.71	-3.95	.00
19	과제를 잘해 갈 때에는 편안하다.	3.35	1.22	1.63	.79	1.72	11.24	.00

수업 관련 편안함을 묻는 5개의 문항 중 한국인 대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안함을 응답하였던 문항은 4문항(4, 8, 12, 16번)이었으며, 이들 중 2문항(8, 16번)은 집단 간 응답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대학생이 중국인 유학생에 비하여 영어 회화 수업을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인 바라고 하겠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인 학생들의 경우 과제 준비가 충분한 경우 심적인 편안함(평균 3.35)을 느끼지만,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못하며(평균 1.63)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영어 회화 수업은 실제 의사소통 생활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측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과제 준비가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수자는 과제 부여의 차별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 관련 불안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중국인 학생들의 불안감 완화를 위하여서 수업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처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평가에 필요한 과제만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 2.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 유발 상황과 원인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生の 영어 말하기 불안감 인식 정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어 말하기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과 원인을 질문하는 개방형 문항에 대한 질적 응답을 유도하였다. 다음 <표 9>는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개방형 설문 질적 응답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 응답을 기준으로 하여 내림차순 빈도 순위로 정리하였다.

<표 9> 영어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과 원인: 개방형 응답

영어 말하기 불안 유발 상황과 원인	중국인 (N = 86)		한국인 (N = 100)		관련 설문 문항 번호	
	빈도	순위	빈도	순위		
상황	수업 시간에 토론이나 발표할 때	36	1	41	1	20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과 대화할 때	18	2			13, 25
	표현, 어휘가 생각나지 않을 때	8	3	12	3	11, 24
	갑자기 영어로 표현해야 할 때			15	2	5, 17
	말하기 시험이나 면접을 보아야 할 때			12	3	2
원인	말하기 실력의 부족	37	1	6	4	10, 14
	어휘량의 부족	21	2			
	자신감의 부족	12	3	48	1	9
	입시 위주의 교육 결과	9	4			
	타인의 평가에 대한 시선 및 압박감	5	5	3	5	18, 21
	긴장하거나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22	2	5, 11, 14
	문법적인 오류나 실수에 대한 불안감			15	3	10, 26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모두 가장 불안감이 높은 영어 말하기 상황은 ‘수업 시간에 영어로 토론이나 발표를 할 때’였다. 중국인 유학생 총 86명의 응답 중 36명이 한국인 대학생 100명 중 41명이 이를 언급하였다. 이는 설문 문항 20번 ‘준비 없이 영어로 발표해야 할 때는 공포심을 느낀다’에 대하여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 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응답 수준을 보인 것과 일관된 응답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과 대화’ 하는 것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한국인 대학생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한국인 대학생들이 영어 원어 수업은 원어민 교수자들이 주로 담당하여 수업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이를 주어진 상황으로 받아들여 불안감의 요소로 인식하지 않은 이유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중국인 대학생들이 질적 응답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갑자기 영어로 표현해야 할 때’ (15명 언급)와 ‘말하기 시험이나 면접을 보아야 할 때’ (12명 언급)에 대하여 상당수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한국인 대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보다 말하기의 유창성을 보다 중시하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

하여 질문하는 설문지 2번 문항 응답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 대학생은 말하기 시험과 관련하여 불안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영어 말하기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과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영어 말하기 실력의 부족’에 대하여 37명이 언급하여 가장 많은 수의 응답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자신감의 부족’에 대하여 가장 많은 수인 48명이 언급하였다. 이는 설문지 9번 문항 ‘수업 시간에 영어를 사용할 때, 자신감이 부족하다’에 대하여 한국인 대학생(평균 3.43)이 중국인 대학생(평균 3.2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인 응답 결과와 일관된 결과라고 하겠다. 질적인 응답 분석 결과 흥미로운 점은 설문지에 양적으로 응답하는 문항에서 ‘어휘’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불안감의 원인으로 제시된 문항이 없으나 중국인 대학생들은 이를 원인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중국인 대학생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 이들은 말하기 교육이 아닌 문법 위주로 자신들이 받아온 영어교육의 결과가 영어 말하기 불안감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불안감의 원인을 보다 상세화하고 이를 양적으로 측정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어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영어 말하기 불안감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여 국내 H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86명과 한국인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불안감 유형별 정도 차이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질문 ‘교양 영어 회화 과목을 함께 수강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의 수업 시, 시험 및 수업 준비 관련, 교수자와 동료 관련 영어 말하기 불안감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인 유학생은 모든 불안감 세부 영역에서 걸쳐 한국인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높은 수준의 불안감 인식 정도를 보였다. 중국인 학생들의 경우 불안감 인식 정도는 수업 시 느끼는 불안감 영역이 가장 높으며, 동료에 대한 불안감,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 교수자에 대한 불안감의 순서로 드러났다. 이와 달리 한국인 응답자의 경우는 동료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으며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 수업 시 불안감 그리고 교수자에 대한 불안감의 순서로 불안감 인식 정도를 보였다. 개방형 응답에서는 두 집단 모두 영어 말하기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으로는 영어로 토론이나 발표를 해야 할 때가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영어 말하기 실력의 부족을 가장 큰 불안감의 원인으로 언급하였으나, 한국인 대학생은 자신감의 부족을 들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로 교양 영어 회화 수업 시간에 중국인과 한국인 학생이 함께하는 상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수자는 이를 고려하여 이들의 속성을 반영하는 수업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Skehan(198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집단별 학습자의 정의적 속성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를 교수자들이 고려하여 개별 학생들의 학습 성취를 높이는 것에 있다. 또한 Song(2019)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생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이다. 따라서 중국인과 한국인 학생의 높은 불안감 요인들을 완화하는 처치를 교수자는 염두에 두고 교양 영어 수업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결과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문헌상의 제언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긴장감이 가장 높은 수업 시 불안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는 자신감의 결여를 보였다. 따라서 수업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여 중국인 학생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긍정적 피드백(Brown & Lee, 2014)으로 자신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평가 및 수업 준비 불안감과 관련하여서는 두 집단 모두 영어 발표 준비 관련 불안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수자는 영어 발표와 관련하여 수업계획서 및 수업 초기 단계에 영어 발표에 관한 상세한 안내(Park, 2020)를 하여 이들의 불안감을 완화 시키는 등 관련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성적에 대한 불안감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성적 처리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충분히 제공하여 높은 불안감을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교수자 관련 불안감에 있어 중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수자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인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수자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수업 이외에도 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묻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보여(Kim, 2019) 교수자에게 가지고 있는 거리감을 줄이고 감정적 유대감을 높여 불안감을 낮추는 처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여 보인다. 동료 관련 불안감의 경우 중국인 대학생은 동료 앞에서 말하는 상황에 대하여 높은 불안감을 보였고 한국인 대학생은 동료의 영어 실력을 의식할 때 불안감이 높은 점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교수자는 중국인 학생에게 동료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 경험을 다수 부여(Kim, 2015)하여 불안감을 극복하게 하고, 한국인 대학생 대상으로는 다양한 국적 배경을 지닌 교실 내 동료를 경쟁자나 이방인이 아닌 의사소통에 필요한 동반자로 간주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불안함과 반대인 편안함에 대하여 질문한 설문 문항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학생에게는 수업 준비 과제가 불안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한국인 학생에게는 과도한 과제보다는 평가에 필요한 과제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교수자의 처치는 집단 속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 학습자들이 함께 수강하는 교양 영어 회화 수업에서 개별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을 낮추는 결

과를 유도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개별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MacIntyre & Gardner, 1991), 궁극적으로 영어 말하기 수행에 있어 창의성을 발휘하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긍정적인 결과(Brown & Lee, 2014)를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 영어교육의 국제화를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적으로 앞서 언급한 교실 내 교수자의 처치를 학교 단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영어 발표와 관련된 수업계획서의 상세화, 영어 성적 처리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정보의 선제적 제공 등은 개별 교수자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교양 영어 프로그램 차원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자에 대한 거리감이나 한국인 대학생들이 다양한 국적을 지닌 동료 학생을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교수자의 수업 내 처치도 필요하나 학교 차원의 행정적 조처 및 노력(Ko & Lee, 2020)도 필요하여 보인다. 예를 들어 다양한 국적 배경의 학생과 원어민 비원어민 교수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적절한 영어 학습 지원 센터 등의 운영을 들 수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어로 강의하는 교양 영어 회화 수업에 국한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국내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공에서의 영어 원어 강의를 존재하고 있다(Kim, 2015). 그리고 영어 전용이 아니라 한국어가 함께 사용되는 영어 수업도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전용 및 병행을 하는 교양 영어 수업(Park, 2020)도 실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범위를 넓혀 이들 수업 별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영어 불안감을 비교 파악하고 이를 처치할 방안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이 경우 한국인 영어 교수자와 원어민 영어 교수자에 따른 매개 변수의 효과 및 교실 내 학생 수 규모의 차이에 따른 불안감 비교도 측정 가능하여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영어 수준을 개인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설문 결과 분석에 따르면 중국인 대학생은 질적인 응답에서 영어 실력을 불안감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한국인 대학생도 동료의 영어 실력을 인식하는 것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큰 원인으로 문항에 응답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표준화된 영어 시험 결과를 개인별로 파악하여 영어 수준에 따른 영어 말하기 불안감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Brown, D., & Lee, H. (2014). *Teaching by principles* (4th eds.). Longman.
- Horwitz, E., Horwitz, M. B., & Cope, J. (1986).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0(2), 125-132. <https://doi.org/10.2307/327317>
- Jang, J. D. (2003). Levels of language anxiety relative to proficiency levels. *English Language Teaching*, 15(4), 15-41.
- Jo, M. W. (2009). A study on learning motivation and speaking anxiety among Asian students in America.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35(4), 185-213. <https://doi.org/10.21559/aellk.2009.35.4.010> 국문: 조미원(2009). 외국인 학습동기와 말하기 불안: 아시아계 학습자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35(4), 185-213.
- Kim, K. C., & Park, H. S. (2014). The relationships between English reading anxiety and reading proficiency of Korean college student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0(4), 253-280. <https://doi.org/10.21559/aellk.2014.40.4.013> 국문: 김경철, 박혜숙(2014). 대학생들의 영어 읽기 불안과 읽기 성취도의 관계. *영어영문학연구*, 40(4), 253-280.
- Kim, K. R. (2015).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difficulties in the comprehension of undergraduate English lectures.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75), 61-80. 국문: 김경란(2015).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양영어 학습의 문제 연구. *언어과학연구*, (75), 61-80.
- Kim, S. H. (2019). The current statu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learning English and required support at a university in Korea. *Studies in Linguistics*, (50), 365-389. <https://doi.org/10.17002/sil.50.201901.365> 국문: 김성희(2019). 국내 한 대학에서 중국유학생들이 경험한 영어 학습 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언어학 연구*, (50), 365-389.
- Kim, S. Y. (2009). Questioning the stability of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and motivation across different classroom contexts. *Foreign Language Annals*, 42(1), 138-157. <https://doi.org/10.1111/j.1944-9720.2009.01012.x>
- Kim, S. Y., & Kim, J. H. (2004). When the learner becomes a teacher: Foreign language anxiety as an occupational hazard. *English Teaching*, 59(1), 165-185.
- Ko, J. Y., & Lee, K. H. (2020). Relations between career core competency and creative personality of university students for competency-based career education.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1), 219-243. <http://dx.doi.org/10.34226/gcl>

- 2020.10.1.219 ☞ 국문: 고주연, 이경화(2020). 역량기반 진로교육을 위한 대학생의 창의적 성향과 진로핵심역량 간의 관계.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1), 219-243.
- MacIntyre, P. D., & Gardner, R. C. (1991). Methods and results in the study of anxiety and language learn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Language Learning*, 41(1), 85-117. <https://doi.org/10.1111/j.1467-1770.1991.tb00677.x>
- Ministry of Education. (2020). *Statistics of foreign students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in 202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82916> ☞ 국문: 교육부(2020).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 Park, E. K. (2020). Perception of learner anxiety towards online college English classes during COVID-19.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20-338. <http://dx.doi.org/10.15702/mall.2020.23.3.320> ☞ 국문: 박은경(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교양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인식조사.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3(3), 320-338.
- Park, H. J. (2002). The effects of anxiety on Korean EFL learners' achievemen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3), 171-191. ☞ 국문: 박현주(2002). 불안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언어학*, 10(3), 171-191.
- Park, J. S. (1998). The effects of anxiety and motivation on the oral performance in English conversation classroom. *English Teaching*, 53(1), 73-102. ☞ 국문: 박정숙(1998). 영어회화수업에서 불안심리와 학습동기가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53(4), 73-102.
- Scovel, T. (1978). The effect of affect on foreign language learning: A review of the anxiety research. *Language Learning*, 28(1), 129-142. <https://doi.org/10.1111/j.1467-1770.1978.tb00309.x>
- Shin, S. H., & Yoo, M. M. (2014). A qualitative study on the acculturation experiences of the Chinese students at a South Korean university.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18(2), 45-69. ☞ 국문: 신선희, 유문무(2014). 재한(在韓)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18(2), 45-69.
- Skehan, P.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language learning*. Routledge. <https://dx.doi.org/10.4324/9781315831664>
- Song, H. J. (2019). Determination and validation of factors for measuring university education satisfaction.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5), 131-158. <http://doi.org/10.34226/gcl.2019.9.5.131> ☞ 국문: 송홍준(2019). 대학교육 만족도 측정요인 도출 및

- 타당성 검증.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5), 131-158.
- Sparks, R. L., & Ganschow, L. (2007). Is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measuring anxiety or language skills?. *Foreign Language Annals*, 40(2), 260-287. <https://doi.org/10.1111/j.1944-9720.2007.tb03201.x>
- Woodrow, L. (2006). Anxiety and speak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RELC Journal*, 37(3), 308-328. <https://doi.org/10.1177/0033688206071315>
- Yoo, Y. M., & Pyo, K. H. (2009). A study of college students' speaking anxiety in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with a native speaker teacher.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3(2), 59-84. <https://doi.org/10.16933/sfle.2009.23.2.59> 국문: 유영미, 표경현(2009). 원어민 교사 회화 수업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말하기 불안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3(2), 59-84.
- Young, D. J.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foreign language oral proficiency ratings. In E. K. Horwitz & D. J. Young (Eds.), *Language anxiety: From theory and research to classroom implications* (pp. 57-63). Prentice Hall.